능률(김성곤)

7. Finding Out the Wonders

1. [one of the+최상급+복수명사]

- 1) 'one of the+형용사의 최상급+복수명사'는 '가장 ~한 ..중 하나'라고 해석된다.
- 2) 형용사의 최상급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원급의 형용사에 '-est'를 붙이고 'e'로 끝나는 형용사는 '-st'를 붙인다.
 - (2) '자음+y'로 끝나는 형용사는 'y'를 'i'로 바꾸고 '-est'를 붙인다.

고1

- (3) '단모음+단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는 단자음을 한 번 더 쓴 후 '-est'를 붙인다.
- (4) 3음절 이상의 형용사는 'the+most+형용사'로 사용한다.
- (5) 불규칙적 변화: 'best(good의 최상급)', 'worst(bad의 최상급)', 'most(many의 최상급)', 'least(little의 최상급)'
- 3) 이 구문이 주어로 사용될 경우 단수 취급해야 한다.

[교과서 예문으로 확인하기]

One of hanji's newest uses is a treat for the ears.

✓ 최상급 자리에 'new'의 최상급인 'newest'가 사용되었고 복수명사 자리에 'uses'가 사용되었다. 여기서 'use'는 '용도'라는 의미의 명사로 사용되었다. [one of+the+최상급+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해야 하므로 be동사 'is'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석> 한지의 최신 용도들 중 하나는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And now, in one of its most innovative uses yet, hanji may soon be traveling into outer space.

✓ 최상급 자리에 'innovative'의 최상급인 'most innovative'가 사용되었다. 'innovative'는 3음절 이상의 단어로 최상급을 만들 때 'the most'를 붙여 만든다. 여기에서는 'its'가 위치하여 정관사 'the'가 생략되었다. 복수명사 자리에는 'uses'가 사용되었다.

<해석> 그리고 지금. 가장 혁신적인 용도들 중 하나로. 한지는 곧 우주 공간으로 여행을 떠날지도 모른다.

2. 동격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 1) 명사의 뒤에 그 의미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 명사절을 위치시킬 수 있다. 이 때 접속사 'that'이 명사절을 이끌고 명사 와 명사절을 동격 관계라고 일컫는다.
- 2) 동격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은 생략할 수 없다.
- 3) 동격절을 이끄는 주요 명사에는 'fact', 'idea', 'thought', 'question', 'news', 'opinion'이 있다.

[교과서 예문으로 확인하기]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sound will not change over time because of the strength of hanji makes these speakers a great purchase.

√ 'the fact'와 동격인 명사절 'the sound will not change over time because of the strength of hanji'을 접속사 'that'이 이끌고 있다.

<해석> 게다가, 한지의 내구성 덕분에 시간이 흘러도 소리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이 스피커를 훌륭한 구매품이 되게 한다.



미리보는 빈출문장

Until 1966, no one knew 1)that the Mugujeonggwang Daedaranigyeong 2), the world's oldest 3)printed document, 4)lay inside a container at Bulguksa Temple in Gyeongju, Korea.

1) 접속사 'that'

동사 'knew'의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사용되었다. 접속사 'that'이후에는 완전한 문장이 이어져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이 'that'은 생략 가능하다.

2) 동격의 콤마

'the Mugujeonggwang Daedaranigyeong'과 'the world's oldest printed document'는 동격, 즉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3) 과거분사

'document'는 인쇄가 되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현재분사 'printing'대신 과거분사 'printed'의 수식을 받는다.

4) 자동사 'lie'

'~있다'라는 의미의 자동사 'lie'의 과거형인 'lay'가 사용되었다. 이 동사의 과거분사형은 'lain'이다.

<해석> 1966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인 무구정관대다라니경이 대한민국 경주에 있는 불국사의 함 안에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This discovery proved that the paper-making technology of the Unified Silla Kingdom era (676-935) was more advanced than 1)that of 2)either Japan or China3), both of which also had highly developed paper-making technology.

1) 대명사 'that'

앞에서 언급된 'the paper-making technology'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명사 'that'을 사용하여 이를 받았다. 해석은 '일본이나 중국의 제지기술'이 된다.

2) [either A or B]

이는 'A나 B둘 중 하나'라는 의미를 갖는다. A와 B는 같은 형태로 쓰여야 하며 이 문장에서는 A와 B에 각각 'Japan'과 'China'가 들어 갔다.

3)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콤마 뒤에 관계대명사가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사용되었다. 'both of which'는 'Japan'과 'China'를 선행사로 취하고 있으며 '그 둘 모두는 또한 높은 수준으로 발달된 제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해석된다.

《해석》이 발견은 일본과 중국의 제지 기술보다 통일 신라 시대(676년~935년)의 제지 기술이 더욱 뛰어났었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일본과 중국 또한 높은 수준으로 발달된 제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1)Because of hanji's characteristics, Koreans could see early on that it was more than just something 3)to write on.

1) [Because of+명사(구)]

'Because of'는 전치사 'of'가 쓰였으므로 명사(구)를 뒤에 위치시킨다. 이 문장에서는 'hanji's characteristics'가 왔다. 'Because'만 쓰 였을 경우에는 이 뒤에 절이 위치한다.

2)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something'을 'to write on'이 뒤에서 수식하고 있다. '한지 위에 글을 쓰는 것'이므로 전치사 'on'을 써야 함에 주의한다.

《해석》 한지의 특징 때문에, 한국인들은 일찍부터 한지가 그 위에 글을 쓰는 용도 이상의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미리보는 빈출문장

This armor1), called jigap, was 2)tough enough to stop arrows.

1) 과거분사구

'this armor'를 과거분사 'called jigap'이 수식하는 구조이다. 갑옷은 불리는 대상이므로 현재분사 'calling'이 아닌 과거분사 'called'의 수식을 받았으며 'which is called jigap'에서 '관계대명사+be동사'가 생략된 구조로 볼 수도 있다.

2) [형용사+enough+to+동사원형]

'~하기에 충분히 ..한'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구문이다. 이 문장에서는 형용사 자리에 'tough'가, 동사원형 자리에 'stop'이 들어가서 '화 살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단단한'이라고 해석된다.

〈해석〉 지갑이라고 불리는 이 갑옷은 화살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단단했다.

Though the tide of modernization seems 1)to have 2)made people forget about this paper's outstanding qualities, hanji 3)has endured and remains relevant today.

1) [to have+과거분사]

사람들로 하여금 잊게 만드는 것(to have made people forget)이 '~처럼 보이는 것(seems)'보다 더 과거의 일이므로 'to have+과 거분사'형태가 쓰였다.

2) 사역동사 'make'

사역동사 'make'가 쓰인 [make+목적어+동사원형]의 5형식 문장이 사용되었다. 주어진 문장에서는 목적어 자리에 'people'이, 동사원형 자리에 'forget'이 들어갔다.

3) 현재완료의 계속적 용법

한지가 지속되어 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현재완료의 계속적 용법이 쓰였다. 현재완료의 형태는 [have+과거분사]이고 이 문장에서는 'endure'의 과거분사 'endured'가 쓰였다.

《해석》 비록 현대화의 물결로 사람들이 한지의 우수한 특징들을 잊은 듯했으나, 한지는 지속되어 왔고 오늘날에도 유의미하게 남아 있다.

*1)So long as hanji continues 2)to be treasured, there may be no limit to 3)how it will be enjoyed in the future.

1) [So(as) long as+주어+동사]

'~하기만 하면', '~하는 한'이라는 의미이다. 주어진 문장에서는 주어 자리에 'hanji'가, 동사 자리에 'continues to be treasured'가 쓰여서 '한지가 계속해서 소중히 여겨지는 한'이라고 해석된다.

2) [continue+to+동사원형]

'continue'는 동명사와 to부정사를 모두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인데 이 문장에서는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했다. 한지는 소중히 여겨지 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수동태와 to부정사가 함께 사용되어 'continues to be treasured'가 되었다.

3) 간접의문문

간접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주어+동사]이다. 주어진 문장에서는 의문사 자리에 'how', 주어 자리에 'it', 동사 자리에 'will be~'가 쓰였다. 해석은 '미래에 한지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가 된다.

《해석》 한지가 계속해서 소중히 여겨지는 한, 미래에 한지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한계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3조에 의한 표시

- 1) 제작연월일 : 2018년 06월 12일
- 2) 제작자 : 교육지대㈜
- 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외에도「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